

D램 가격 고공행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여력 ‘충분’

각국 AI 투자 나서며 반도체 가격 ↑
오픈 AI, D램 월 90만장 공급 요청
모건스탠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예고
메모리 공급부족 불가피… 매출 영향

지난 5월 SK하이닉스 주식 3000만원 어치를 매수한 직장인 유모(36)씨는 지난 21일 주당 48만8100원에 모두 팔았다. 며칠 만에 140%가 넘는 수익을 챙긴 데다, ‘조금만 더’ 하며 욕심부리다 매도 시점을 놓칠까 바로 처분했다. 그는 22일 삼성전자 주식이 황보하자 추가 매수했다. 유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아니면 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매수한 것”이라며 “수익이 8~9%만 되면 미련 없이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4)씨도 22일 9만5800원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2000여만원어치 사들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월급을 받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0~20주씩 사서 모으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도 나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D램 가격 상승으로 주가상승이 예고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 이미지.

지 않고 배당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연 말까지는 꾸준히 사서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10만원)와 ‘50만 닉스’(SK하이닉스 주가 50만원)

가 고공행진 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사라’고 외친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13% 하락한 9만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0.52% 상승한 48만 15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지금이가장 쌀때다”라고 말한다.

글로벌 각국과 기업들이 앞다퉀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서면서 반도체 몸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 1일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의 D램 공급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능력의 약 75%로 추산된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대규모 투자가 결합해 상승 국면이 예고된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1000원,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주가 눈높이를 더욱 높여 잡고 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46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신증권은 48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상

향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5~20% 상승할 것”이라며 “HBM4 12단 인 증에서 가장 앞서 있고 내년에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수요가 HBM 중심에서 서버 DRAM, GDDR7, LPDDR5X, eSSD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수적 설비투자 기조로 단기 공급 증가가 어려워 2026~2027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익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21조원, 영업이익은 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52만원으로, iM증권은 53만원으로 각각 올리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 진입을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 확산과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양증권, 해외자금 조달 ‘빅딜’ 잇따라

글로벌 IB 조직 신설 반년만에 성과
500여개 해외 금융기관 네트워크 보유
국내기업 해외 시장 자금조달 지원

한양증권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 가고 있다. 글로벌 IB 조직을 신설한 지 반년 만에 유럽·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 굵직한 자금 조달 딜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지난 3월 자본시장본부 내에 신설한 글로벌 IB 조직이 6개월 만에 주요 해외 자금 조달 딜을 잇따라 성사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신디케이트론 및 사모사채 주관·주선·자문을 중심으로 다루며, 최근 ▲넥센타이어 체코법인 8500만 유로 대출 ▲한화오션 2500억원 신디케이션 대리기관 업무 ▲현대제철 미화 7000만달러 대출 주선 ▲대신에프앤아이 500억원 대출자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양증권은 조직 신설과 함께 해외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석 이사를 글로벌 IB 리더로 영입했다. 노 이사는 미국



한양증권 본사.

위스콘신주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HSBC, 중국건설은행(CCB),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중국공상은행(ICBC), BNK투자증권 등 국내외 주요 금융사에서 기업금융·신디케이션·ECA 수출금융·글로벌 IB 금융주선 등의 분야를 두루 거친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다.

한양증권의 글로벌 IB 조직은 500여개 해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세무·구조 설계 등 전문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복잡한 해외 거래에서도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딜을 소싱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을 높인 점도 부각된다.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흥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특성형 IB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지금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부채성 거래를 중심으로 성과를 쌓아왔지만, 향후에는 미국 나스닥(NASDAQ), 인도네시아(IDX), 태국(SET) 등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사와의 자본성 거래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본부 내 자본시장 노하우를 결합해, 부채와 자본을 아우르는 해외 종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금융 기관뿐 아니라 현지 법률·회계법인 및 IB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순 금융주선에 머물지 않고 구조화·컨설팅 기능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IB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 5449명’ 유치

업계 최초 5000명 돌파·최다 기록

국내 자산관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초고액자산가 5000명 시대’를 열었다.

삼성증권은 9월 말 기준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가 5449명으로 2020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업계 최고이자 최다 기록이다.

삼성증권의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194%), 40대(184%), 20대(178%), 50대(147%), 60대(93%), 70대 이상(39%) 순으로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이 초부유층 고객 수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부유층 고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은 2020년 말 23.0% 수준에서 2025년 9월 말 11.5%로 11.5%포인트 감소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들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주

로 글로벌 자산으로 리밸런싱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체 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말 12.6%에서 2025년 23.2%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국내의 채권과 해외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증권은 고급 리 환경에서 절세 메리트가 높은 저쿠폰 국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및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발맞춰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늘고 있다.

/신하은 기자

3분기 DLS 발행액 7.6兆… 사모 중심 확대

예탁원 ‘3분기 DLS 발행·상환 실적’
사모 비중 전체 발행 77.3% 차지

국내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이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금리 연계형 상품 중심으로 발행이 늘면서 발행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고, 잔액 역시 37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2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DLS 발행·상환 실적’에 따르면 DLS 발행잔액은 37조5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35조3483억원)보다 6.2%, 전년 동기(31조5660억원) 대비로는 18.9% 증가한 수치다. 발행금액은 7조625억원으로 전분기(6조4225억원)보다 10%, 전년 동기(4조7578억원)보다 48.4% 늘었다.

발행 형태별로는 사모 발행이 5조 4864억원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공모 발행(1조5761억원)은 직전 분기(2조400억원)보다 22.7% 줄었지만,

전년 동기(1조4995억원) 대비 5.1% 늘었다. 사모 중심의 발행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기초자산별로는 금리연계 DLS가 5조 4601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77.3%를 차지했다. 신용연계 DLS는 8645억원(12.2%)으로, 두 자산 유형이 전체의 89.5%를 점유했다. 환율연계 DLS는 4386억원(6.2%), 지수형은 2000억원(2.8%)으로 뒤를 이었다.

발행사별로는 하나증권이 1조7373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5622억원), 키움증권(4890억원), IBK투자증권(4595억원), 대신증권(4547억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증권사의 발행금액은 총 3조702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4%를 차지했다.

3분기 DLS 상환금액은 5조2977억원으로 전분기(4조2657억원) 대비 24.2%, 전년 동기(4조4210억원) 대비 19.8%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3세대 고객에 감사 마음 전해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 진행

하나증권이 손님 중심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를 진행하고, 3세대 이상 거래 중인 가족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나증권은 올해를 ‘손님 중심 가치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고객 경험을 경영의 핵심 축으로 두는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3세대 이상 거래 중인 가족 고객 30명을 선정해 세대에 걸쳐 회사와 함께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 중 10명에게는 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호텔 이용권을, 20명에게는 커팅 보드를 증정했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고객 가치 중심

문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손님의 공로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수익 기여, 고액 자산, 장기 거래, 회사 공헌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선정하고, 현액 및 CEO 주관 프라이빗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거래 중이신 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에게는 손님은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기 위해 준비한 시리즈”라며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연례화하여 하나증권만의 차별화된 손님 중심 가치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